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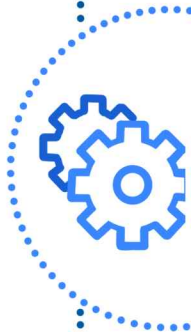




목 차

	인슈어테크 동향	21
해외	- 프랑스, 영국에 이어 유럽 제2위 핀테크 허브로 급부상	21
	- 호주 Allianz,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가상현실(VR) 치료 도입	22
	-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보, 보험 상품 모집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	23
	- AI 배터리 진단으로 보험료 인하	24
기업	- 보험사 '헬스케어' 각축전...미래에셋생명도 플랫폼에 서비스 장착	25
	- 보험진단 '네·카·토·뱅'서 클릭 한번이면 '끝'	26
	- "소상공인 재해 피해 앱으로 간편 대비"...페이하이어-삼성화재 맞손	27





프랑스, 영국에 이어 유럽 제2위 핀테크 허브로 급부상

- 프랑스의 인슈어테크 산업은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디지털 혁신 노력에 힘입어 2021~2023년간 연 20% 내외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인슈어테크의 2023년 시장 규모는 7.6조 원으로 핀테크 산업 중 간편결제 다음으로 크며, 대표적 기업으로 Alan(건강보험), Shift Technology(보험사기탐지), Wakam(임베디드보험) 등이 있음
-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의 ‘기업성장변화법(PACTE*, 2019년 5월)’을 시작으로 핀테크 투자의 큰 성장세가 나타남
 - *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 이 법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블록체인·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 발표 후 3년간(2019~2021년) 프랑스 핀테크 투자는 연 41.9%의 빠른 성장세였고 특히 미국, 중국 등에서 투자가 늘면서 2021년엔 핀테크 투자가 100억 유로(15.1조 원)를 기록해 핀테크 강국인 영국(83억 유로)을 뛰어넘기도 함
- 또한 규제샌드박스(2016년 도입)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결제, 인터넷뱅크, 인슈어테크, 자산관리, 블록체인 등 핀테크 전반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음
 -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성장변화법과 시너지 효과를 보이며 2015년에 100개 미만이었던 핀테크업체 수가 2021년 1200개까지 급증
 - 대형 보험사인 AXA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후 인슈어테크 인큐베이터를 설립, Qare(원격진료), Apricity(임신클리닉) 등 혁신 인슈어테크 업체의 육성에 기여
- 마지막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유럽 금융중심지 위상 약화와 함께 그 반사효과를 프랑스가 상당 부분 누리고 있음
- 프랑스는 이처럼 지난 5년간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급성장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인슈어테크, 블록체인·가상자산, P2P 부문에서 유니콘을 5개나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음





호주 Allianz,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가상현실(VR) 치료 도입

- 호주의 Allianz(알리안츠)는 시드니 공포증 클리닉과 협력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가상현실(VR) 노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
 - Allianz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CTP 청구*의 38%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2020년 2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
 - * CTP는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의 약자로, 호주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실 차량이 가입한 CTP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
 - 주요 문제로는 불안 및 우울증(41%), 급성 스트레스(23%), PTSD(22%), 신경 쇠약(7%) 등이 포함
 - 이 프로그램은 사고로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운전 조건을 재현하는 등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
- 이는 호주의 일반 보험사 중 처음으로 VR 기술을 활용한 운전 공포증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 능력에서 상당한 개선을 경험
 - 치료를 받은 고객 중 한 명은 심각한 사고 이후 PTSD를 겪었으나 VR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되어 다시 운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밝힘
- Allianz는 이 성공적인 파일럿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
 - 시드니와 울런공의 Fear Less 클리닉 및 퀸즐랜드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스마트폰 기반 플랫폼인 'oVRcome'을 도입하여 시골 및 지역 고객들에게도 유사한 VR 노출 치료를 제공할 계획



출처 : Insurance Business(2024.12.17.) Allianz drives recovery with virtual reality therapy for accident trau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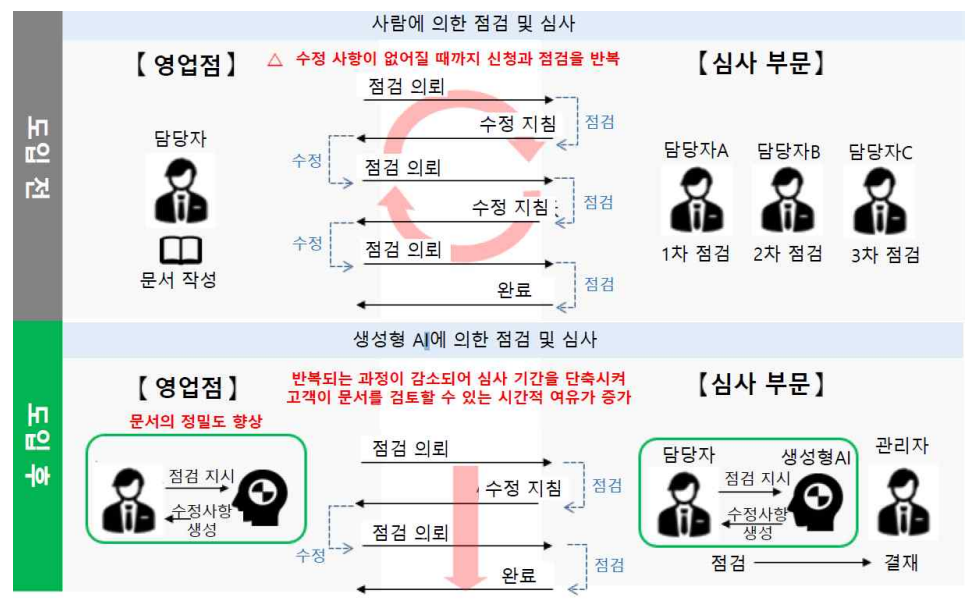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보, 보험 상품 모집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

-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해보험은 보험 상품 모집 업무에 활용되는 문서(이하 '모집 문서')를 생성형 AI가 점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24년 12월부터 운용을 개시했다고 밝힘
- 기존에는 사람에 의해 모집 문서가 점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와 점검하는 담당자 간 여러 번의 수정과 점검이 반복되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
 - 보험 상품의 판매나 권유 시 사용하는 팸플릿 등의 모집 문서는 오해를 초래하는 표현이 없고 알기 쉽도록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수의 담당자들의 점검이 필요
 - 특히 기업이나 단체 등의 고객의 경우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제안에 맞추어 지점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므로 일반적인 문서보다 문서 점검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모집 문서 점검 업무에 생성형 AI를 도입할 경우 업무 효율화로 인한 점검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고객은 충분한 문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모집 문서의 오탈자, 표기 불일치, 적용 할인율, 가입 조건 등의 점검 항목을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점검한 후 수정 사항을 표시하여 수정 지침을 제공
 - 이를 통해 모집 문서 초기 점검 업무에 걸리는 시간을 50%인 약 4,000시간을 절감

인슈어 테크

<생성형 AI 모집 문서 점검 도입 전후>



-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해보험 측은 보험 모집 문서 점검·심사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상품·사무 영역 등에도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힘

출처 :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해보험 News Release(2024.11.22.) 保険商品の販売に関わる募集文書の審査・点検業務に生成AIを活用



AI 배터리 진단으로 보험료 인하

- 보험사들이 AI 기반 배터리 진단 기술을 도입하며 차량 및 BESS* 소유자에게 보험료 절감을 제공하고 위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으로 태양광 발전기, 풍력 발전기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결합하여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AI 진단 기술을 사용할 경우 배터리 열화* 상태를 조기에 감지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배터리 내부에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

- 배터리 열화는 예상치 못한 고장이나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려면 전압, 전류, 저항과 같은 기본 전기화학적 데이터를 장기간 측정하여 배터리 상태를 정밀히 추적해야 함
- AI 진단은 초기 열화를 발견하고 충전 프로필과 사용 전략을 최적화해 배터리 수명을 10~20% 연장해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킴

- 이러한 AI 진단이 제공하는 안전성은 열화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임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고 지급 건수를 줄이는 데 기여해 보험사에게도 큰 이점을 제공

- 유럽의 HDI 보험사는 클라우드 기반 진단 서비스를 통해 배터리 상태를 정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배터리 진단 서비스 제공 회사인 ACCURE와 협력해 고객이 AI 진단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
- 영국의 NARDAC 보험사는 AI 배터리 진단 서비스 제공 기업인 TWAICE와 협력하여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

- AI 배터리 진단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3.4%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성장은 보험사 간의 협력으로 더 촉진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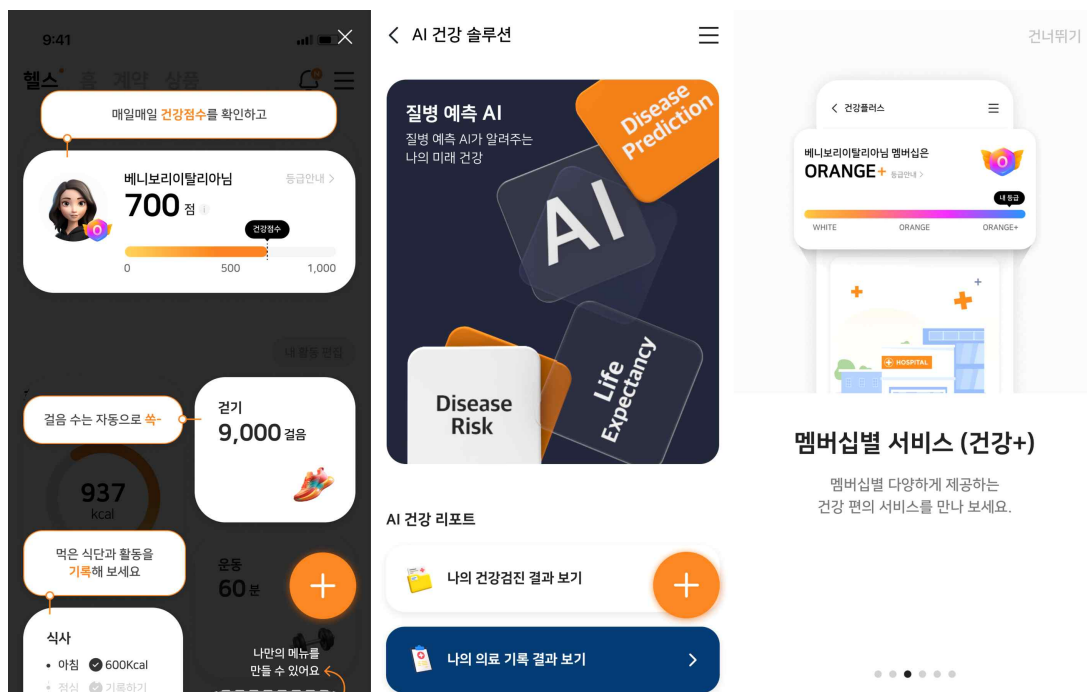
출처 : IDTechEx(2024.12.16.) AI Diagnostics Could Allow for Lower Insurance Premiums for BESS



보험사 '헬스케어' 각축전...미래에셋생명도 플랫폼에 서비스 장착

-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주목하며 관련 플랫폼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미래에셋생명도 자사 앱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오픈하며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있음
- 미래에셋생명은 1월 6일부터 자사 앱 '엠라이프(M-LIFE)'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탑재
 - 해당 서비스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헬스케어 앱 회원가입 고객을 △화이트 △오렌지 △오렌지플러스 등 등급을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카테고리는 △건강 습관 관리 △건강 기록 관리 △의료 편의(건강 플러스) 등 크게 3가지로 분류
 - 미래 건강 점수·운동 및 식단 관리·영양제 분석 등 건강 습관 관리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나, AI 건강 리포트·건강검진 우대 예약·건강검진 분석 상담 등 건강 기록 관리와 병원 예약이나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심화된 의료 편의 서비스는 고객 등급별로 차등 제공
 - 서비스 등급은 보장성·저축성 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화이트 등급의 경우 미래에셋생명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앱 회원가입만으로 총 8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미래에셋생명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화면>



멤버십별 서비스 (건강+)

멤버십별 다양하게 제공하는 건강 편의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달 6일부터 앱 내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해 아직 초기 단계”라며 “서비스 고도화는 데이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내부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

출처 : Bizwatch(2025.01.09.) 보험사 '헬스케어' 각축전...미래에셋생명도 플랫폼에 서비스 장착

인슈어테크





보험진단 ‘네·카·토·뱅’서 클릭 한번이면 ‘끝’

- 네이버페이는 12월 23일 업계 최초로 사용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를 분석하는 ‘내 보험 점검’ 서비스를 공개
 -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소득 수준까지 고려해 또래 평균 대비 자신의 보험 현황을 비교·분석해줌
 -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가입한 보험을 네이버페이와 연결하면 월 납입 보험료, 주요 보장 항목, 상품 종류별 보험료 등을 또래 평균과 비교할 수 있음
 - 예컨대 ‘또래 평균 대비 보험료를 5만원 더 내고 있다’거나 ‘사망·입원·후유장애 보장이 또래보다 적다’ 등의 정보가 제시
 - 또한, 상품별로 또래가 가장 많이 가입한 인기 보험사 및 인기 보장 정보도 제공하여 이용자는 이를 통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거나 과도한 보험을 줄이는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네이버페이 서비스에선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연말정산 세액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음
- 카카오페이드도 ‘내 보험 진단하기’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보험료가 또래에 비해 어느정도 수준인지, 주요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진단
- 토스의 서비스는 연령대별로 필요한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는 것이 특징으로 토스 인슈어런스 소속 보험 설계사를 통해 본인의 보험 현황을 상담받을 수도 있음

<네·카·토 보험 진단·분석 서비스>

- ✓ 또래 평균 대비 보험료 비교
- ✓ 3대 질환 등 보장 항목 점검
- ✓ 연령대별 보험 추천·인기 상품 확인
- ✓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확인
- ✓ 보험상품 설계 상담(보험사 연계)

자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 뱅크샐러드는 건강 마이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맞춤형 보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
- 보험료 부담이 큰 소비자라면 이러한 핀테크 기업의 보험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 보유한 보험이 충분한지, 또래에서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은지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출처 : 한국경제(2024.12.29.) 보험진단 ‘네·카·토·뱅’서 클릭 한번이면 ‘끝’





“소상공인 재해 피해 앱으로 간편 대비”...페이히어-삼성화재 맞손

- 삼성화재가 포스(POS)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와 함께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VI)’ 간편 가입 서비스와 함께 매장 관리 임베디드 서비스를 시작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 또는 재해(태풍·호우·홍수·강풍·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은 물적 손해를 보상해 줌
 - 페이히어는 매장 운영으로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풍수해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를 지원, 페이히어 앱을 다운받고 매장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와 피해 상황별 보상 범위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또 페이히어 앱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 서비스 외에도 비대면 카드 가맹, 매장 및 매출 현황 분석, 재고 관리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음

<페이히어-삼성화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원스톱 가입 서비스>



- 페이히어는 향후 매장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
- 해당 서비스에 이어 페이히어와 삼성화재는 매장 관리 플랫폼과 보험 상품을 결합한 임베디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예정

출처 : 머니투데이(2024.12.24.) “소상공인 재해 피해 앱으로 간편 대비”...페이히어-삼성화재 맞손

